

# 백두반 쉬운 문법 연구/3월 23일

## 모음조화(Vowel harmony) ‘아’ 와 ‘어’ = 밝음 & 어두움

모음조화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→ 의성어와 의태어  
다른 언어에는 거의 없는 현상으로 밝은 모음, 어두운 모음인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

- (1) 의성어(擬聲語): 사람 혹은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  
→ 소리를 흉내 낼 때 **느낌까지 담은 말이 의성어**이다.  
→ 싹싹, 멍멍, 땡땡, 우당탕, 퍼덕퍼덕  
→ 한글의 웃음소리는 히읗 계통과 쌍기역 계통으로 나누어 진다.  
\* ‘하하, 허허, 호호, 후후, 헤헤, 흐흐, 히히’ → 누가 어떤 느낌으로 웃는 것인지 추측이 가능  
\* ‘깔깔, 깔깔, 낄낄’ 등을 보면서도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다.  
\* ‘앙앙, 엉엉, 잉잉’의 느낌도 전혀 다르다.

이처럼 모음조화는 우리의 세밀한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.



백두반 쉬운 문법 연구/3월 23일

모음조화(Vowel harmony) ‘아’ 와 ‘어’ = 밝음 & 어두움

모음조화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→ 의성어와 의태어

다른 언어에는 거의 없는 현상으로 밝은 모음, 어두운 모음인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

(2) 의태어(態語) : 사람 혹은 사물의 모양, 움직임을 흉내 낸 말(의성어는 소리를 흉내 냄)

→ 모음조화, 자음교체에 따라 어감을 분화시킬 수 있다.

→ 아장아장, 엉금엉금, 번쩍번쩍, 씹씹거리다, 우걱우걱, 팔짝팔짝...

→ 모양을 흉내 낸 말이어서 창의력이 첨가된다.

\* ‘깡충, 꺅충’의 느낌, ‘출렁, 찰랑, 철렁’의 느낌 → 모습에 느낌을 담으려 했다!

→ 모음조화(Vowel harmony)는 왜 생겼을까?



## 모음조화(Vowel harmony) ‘아’와 ‘어’= 밝음 & 어두움

모음조화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→ 의성어와 의태어

다른 언어에는 거의 없는 현상으로 밝은 모음, 어두운 모음인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

(3) 모음조화(Vowel harmony)는 왜 생겼을까? (의성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)

→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자.

→ 밝은 느낌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대로 묘사했고 (풍당, 아장아장, 사각사각)

\* 어두운 느낌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했다 (풍덩, 부글부글)

(4) ‘아’와 ‘어’의 느낌변화: 두 모음을 발음해 보고 자신의 입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?

→ 양성모음인 ‘아’라고 말하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표정도 밝아진다.

→ 음성모음인 ‘어’라고 말하면 턱을 내리며 발음이 되면서 인상을 쓰게 된다.

→ ‘오’와 ‘우’도 마찬가지다. ‘오!’는 탄성을, ‘우!’는 비탄과 야유의 느낌이라는 것이다.

(5) ‘밝다’ & ‘어둡다’의 단어를 보라~!

→ ‘밝다’에는 2번의 양성모음이 사용됐고, ‘어둡다’ 역시 2개의 음성모음이 사용됐다.

→ ‘맑다’와 ‘뭉다’

→ ‘박다’와 ‘붇다’

→ ‘나’와 ‘너’ & ‘살다’와 ‘죽다’라는 단어들을 통해 각 단어가 주는 느낌이 다름에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의 노력과 비밀이 있다.

☀ ‘아’, ‘오’ = 태양이 사람의 동쪽에서 떠오르거나 땅 위에서 뜨는 모습이며  
‘어’, ‘우’는 해가 서쪽으로 지거나 땅 아래로 지는 모습을 상형하고 있다.

백두반 쉬운 문법 연구/3월 23일  
모음조화 (Vowel harmony) ‘아’ 와 ‘어’ = 밝음 & 어두움

모음 조화란 무엇일까요?

쉽게 생각하면...

“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”

옛말에서는 모음 조화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규칙적으로 실현됐으나 현재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.

‘·’아래아가 소실되면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대립 체계가 무너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.

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모음 조화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영역이 있다.

바로 흥내말이다. ‘깡충깡충, 오순도순’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없지만,

‘알록달록-얼룩덜룩’

‘잘까닥-절꺼덕’

‘줄줄-줄줄’

등등 수많은 흥내말들이 모음 조화를 따라서 소리나 모양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.

흥내말 말고도 색깔을 나타내는 말 ‘노랗다-누렇다’, ‘검정-감장’에서도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.